

“이런 세상 꿈꿔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4일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조기대선이 현실화 됐다.

광주일보에는 광주·전남 각계 지역민이 대한민국에 바라는 소망을 들어봤다. 이들은 경제 안정·평등·정의·통합·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염원했다.

청년들 어촌 정착 기반 조성을
권재혁 영광 구수·대신어촌계 어민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다. 인터넷이 되지 않아 불편적 역무제도를 직접 신청해 전주를 세우고, 편의점 하나 가려면 차로 10여 분은 나가야 하는 게 지금 어촌의 현실이다. 일보다도 ‘사는 게’ 더 버거워서는 청년이 머물 수 없다. 뿌리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첫 걸음이다.



누구나 존중받을수 있는 나라
이주민 주부 감수민 캄보디아명 마카라

2007년 한국에와 다섯명 아이를 키운지 어느덧 17년이 지났다. 국적이나 출신에 상관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를 꿈꿔 왔다. 첫째는 고등학교 3학년, 막내는 현재 6살인데 성인이 됐을 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한다. 탄핵과 관련해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이제는 정치 내외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



차별 없이 대우 받을수 있길
베리 인도네시아 외국인노동자

우리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 사회에서 안정하게 일하고, 차별 없이 대우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며 에어컨과 냉장고 제조업장에서 지게차 운운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면 한다.



귀농·귀촌 정책 재검토 요구
정부일 청년 농부

전투비행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여름부터 나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새 정부는 귀농, 귀촌 정책을 단순히 인구 유입 문제로만 간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다각적 검토를 해주었으면 한다.

초보 농부들이 재배부터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 광역시 중심의 판매 정책도 강화됐으면 좋겠다.



계엄부터 파면까지 ‘122일’...대한민국 지킨 ‘광주비상행동’

20차례 집회 참석자수 8만3500명
삼보일배 집회·1인 시위·상경 투쟁
반탄 맞불 집회때도 민주광장 지켜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 122일 동안, 겨울 한파와 맞불 집회에도 곳곳이 ‘광장’을 지켰던 광주 시민들이 있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비상계엄 이후 즉각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광주 비상행동’ (광주비상행동)이라는 단체 아래 모여 한 목소리로 ‘탄핵’을 요구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 10일 광주 지역 110개 시민단체를 모아 출범했다. 출범 당시 광주비상행동은 “1980년 5월 이후 44년 만에 자행된 비상계엄 사태의 근본적 배경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며 “현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구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탄핵 선고일인 4일 기존 광주비상행동에 동참한 단체 수는 186개로 늘었다.

광주비상행동은 출범 이후 116일 동안 매주 토요일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총 20차례 열었다.

제1차 집회에서는 1000여명이 참가했으나, 점차 뜻을 함께하는 시민이 늘어 제6차(12월 14일) 집회에서는 4만여명이 모여들어 한 목소리를 냈다. 제1·20차까지 집회 총 참여자 수는 연인원 8만 3500여명에 달한다.

지난 2월 15일에는 금남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의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과 불과 50m 간격을 두고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당시 양측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이 정반대로 갈려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됐으나 다행히 큰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주중에는 같은 장소에서 광주시민대회를 열었으며 1차 시기인 12월 9·13일 동안 연인원 7000여명, 2차 시기인 3월 10·31일 연인원 3200여명이 참가했다.

광주비상행동은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지법, 광주교법을 거쳐 광장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하거나,

세 걸음에 한 번씩 절을 하는 ‘삼보일배’ 집회를 하고 5·18민주광장과 광주지법검찰청 앞에서 탄핵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상경 투쟁도 잇따랐다. 12월 7일에는 1000여명의 시민과 함께 버스 26대를 타고 국회 앞으로 가 상경 투쟁을 했다. 3월 15일에는 1400여명이 버스 47대에 나눠 타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8일 내란우무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부터는 5·18민주광장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24시간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밖에 광주비상행동과 뜻을 같이하는 천주교 교인들의 시국미사, 금속노조 결의대회 등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광주비상행동이 주관한 집회에 참가한 연인원은 10만 5000여명에 달한다.

시민들 또한 광주비상행동에 1억 7000여만원을 후원하고 학팩, 생수, 보온덮개, 패킷, 깃발 등을 지원해 힘을 보탰다. 집회 장소 인근 카페에 “선결제”를 하거나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차, 봉어빵, 어묵 등을 나눠주는 등 연대하는 정신도 빛났다.

한편 광주비상행동은 4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기념하는 ‘광주시민 승리보고대회’를 열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지난4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생방송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대통령 2명 탄핵 모두 참여 김이수·이금규 변호사 눈길

호남 출신...전 재판관·소추 대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현정사상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두 대통령 탄핵에 모두 참여했던 지역 출신 법조인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이수(72·연수원9기)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현재) 재판관으로 심리를 진행했고, 이금규(52·33기) 변호사는 두 탄핵심판에서 모두 국회 측 소추인단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조선대 이사장) 변호사는 2012년 현재 재판관으로 임명돼 2018년 9월 만기퇴임 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현재 재판관이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재판관 임명 당시 국회측 추천 인원으로 9명 중 유일하게 야당 추천 인사였다. 김 변호사는 진보적 의견을 많이 내는 재판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과도 관련이 있다. 1980년 5·18 당시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군 검시관을 했었다. 김 변호사는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82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 변호사를 2017년 현재소장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현정사상 처음으로 현재소장에서 낙마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의 결과가 늦게나와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나

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후의 보루인 현재가 8인 만장일치 결론을 내줘 반갑다.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신뢰에 응답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낸 소추인단에 동시에 활동한 이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전문 변호사로 통한다.

문성고와 전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수원·울산·광주·서울에서 검사를 한 이 변호사는 2013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현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상



김이수 변호사



이금규 변호사

대로 국민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공포·불안과 수치심을 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현재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소장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답보상태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탄핵을 확신했었지만 선고가 장기화돼 불안감이 있었으나 현재에서 확실한 판단을 내려줬다”면서 “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국민적 분열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분열의 양상이 너무 심각해 보여 하루빨리 갈등이 회복되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중

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가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

용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상훈(710826-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서구 경일로54번길 9-5 (농성동)
피상속인 망 김상훈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단283호로 신청하여 2025년 4월 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 채권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4월 7일
• 상속인 : 조영숙(491003-2XXXXXX)
광주 서구 경일로54번길 9-5(농성동)
• 신고기간 : 2025. 4. 7. ~ 2025. 6. 17.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조영숙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광배(570604-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서구 운천로32번길 23, 307동 1507호 (금호동, 금호빛마을제)
피상속인 망 이광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단3399호로 신청하여 2025년 4월 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4월 7일
• 상속인 : 1. 이승환(790320-1XXXXXX)
목포시 남악로22번길 15, 101동 1501호 (목양동, 우미파레하이트)
2. 이현자(510227-2XXXXXX)
목포시 양율로232번길 12, 302호 (용당동, 대건아파트)
• 신고기간 : 2025. 4. 7. ~ 2025. 6. 17.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이승환의 주소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제출공고)

주식회사 에이치비전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삼아(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5년 04월 03일 각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재산(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의무는 “을”이 승계하고,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개 제 일로부터 1개월내로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지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7일
“갑” 주식회사 에이치비전력
광주광역시 북구 청단과로 208번길 43-10, 비동 421호(오룡동, 청단아파트)에이비제지식산업센터)
대표이사 조규환
“을” 주식회사 삼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동로 859, 마산동종합상사 비동 1층 202호
대표이사 박유리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1차)

본 회사는 2025. 3. 31. 총주주총회의 의해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4월 7일
농업회사법인 씨앗 주식회사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대곡길 12-42
청산인 최대길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3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날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여행구독 220-0550

조직변경공고

당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2025년 4월 4일 상법 제363조 제 5항, 제6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감용하는 주주 전원의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 전원 일자에 의하여 ‘주식회사 보배대부’에서 ‘유한회사 보배대부’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1월내에 이의를 제출하지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7일
주식회사 보배대부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4, 제2층 201-09호 (원동, 양우프라자)
사무이사 한영래

73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先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송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안 신 571-7688 • 오 차 266-7801
• 동 송 433-1503 • 우 신 433-18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송 창 222-9054
• 송 창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문 651-1833
• 동 신 673-6836 • 송 화 675-68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통 명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